

쑥쑥 크는 중소형 손보 車보험... 차별화로 상승세 굳힌다

하나손보, 신차 구매고객 단독보험
캐롯손보, 공격적 홍보 마케팅 박차
MG손보, 보험 상품 라인업 강화

중소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높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자동차보험 판매를 꺼리는 손보사와 차별화를 꾀해 입지를 굳혀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보는 최근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단독 보험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 별도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고 단독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신차의 기준을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확대해 가입대상도 넓혔다.

지난 10월에는 티맵(TMAP)과의 제휴를 통한 '안전운전 할인' 상품도 선보였다. 티맵 앱에서 최근 1000km 이상 주행한 안전운전 점수를 측정해 할인율을 적용한다. 61점~79점까지는 4%, 80점이상이면 최대 13%까지 보험료 할인



캐롯손보의 신규 광고캠페인 이미지.

/캐롯손보

혜택을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하나손보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실적은 지속해서 성장해오고 있는 모습이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올해 1~10월 기준 신차 구매 후 하나손보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비중이 205% 가까이 늘었다"며 "가격 경쟁력이 좋아 하나손보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캐롯손보의 경우 광고 모델로 배우 신민아를 내세워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캐롯손보의 하반기 광고캠페인 첫 번째 버전은 마트에서의 당근 구매에 빗대어 당근 kg이 줄면 가격도 줄 듯 자동차 보험료도 적게 타면 적게 내야 한다는 논리를 풀어냈다. 최근 두 번째 버전을 통해서 "신민아씨, 몇 킬로 나가요?"라는 질문에 "저 만 킬로도 안 나가요"라고 답하는 상황을 연출하며 kg과 km의 발음 유사성을 이용해 흥미를 더했다.

여기에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사고케어' 런칭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하나손보의 신차교환보상보험 이미지.

/하나손보

지 확대한다. 'AI 사고케어'는 퍼마일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캐롯 플러그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긴급 연락 및 구조 등의 출동 조치가 가능한 서비스다. 정보통신(IT)과 보험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사한다는 목표다.

MG손보도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운전자보험과 일상생활사고 보장을 결합해 신개념 생활밀접형 보험인

'(무)슬기로운 운전생활보험' 판매를 개시하면서다.

자동차보험의 마일리지 특약 할인율도 확대했다. 연간 주행거리 2000km 이하 승용차는 43%, 4000km 이하 39%, 7000km 이하는 31%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소형 손보사의 과도한 자동차보험 경쟁력 강화가 자칫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월 기준 중소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하나손보 92.1% ▲MG손보 100.1%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및 행정철 자동차 통행량 증가로 손해율이 전달 대비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위드코로나 실시 등으로 사고 건수도 급증하며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급격한 악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상환자가 받아 가는 평균보험금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손해율이 악화될 우려도 높다"고 설명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카드론 DSR 조기 적용... 금리상승세 지속

전업카드사 평균금리 0.41%p ↑
'고신용자 풀림 현상' 지속 우려도

연말을 앞두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카드사의 카드론 취급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고신용자 풀림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표준등급 기준 카드론 평균금리는 12.09~14.73%로 집계됐다. 카드사 7곳의 평균금리는 13.58%로 전월 보다 0.41%포인트 올랐다.

신한카드의 경우 평균금리가 13.13%로 전월 대비 1.67%포인트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그 밖에 우리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의 평균금리가 각각 1.58%포인트, 0.

8%포인트, 0.31%포인트 상승했다.

롯데카드의 평균금리는 14.73%로 전체 카드사 중 가장 높았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0.7%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하나카드, 현대카드 역시 전월 대비 각각 0.51%포인트, 0.26%포인트씩 금리가 떨어졌다.

평균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는 여전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고신용자의 카드론 이용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기준 삼성카드에서 10%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회원 비중은 전체의 24.79%에 달했다. 금리 10% 미만 회원 비중은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에서 각각 23.36%, 10.29%로 집계됐다.

카드론 금리는 인상 기초를 이어갈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조기 적용되는 카드론 DSR 산정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 차주별 DSR 기준이 60%에서 50%로 낮아지면서 내년도 취급 총량이 최소 20%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업권의 평균 DSR 준수현황은 55.7%로 조정비율(50%) 적용 시 이를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들이 대출 총량을 보전하기 위해 카드론 비중을 줄이게 되면 취약 계층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공급이 막힐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조달금리 상승, DSR 조기 적용 등으로 인해 카드론 전체 취급량이 줄어들면서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카드론 동반 부실 차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건 이상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거나 카드론 한도를 감액하는 등 최소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권소원 기자 think@

한화손보, 자금세탁방지 우수 '국무총리상'

위험관리 업무 성실하게 이행

한화손해보험이 의심거래 모니터링 절차 강화 등을 통한 인식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화손보는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유공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화손보는 소비자 피해와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출시하는 신상품에 자금세탁위험 사전 평가를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위험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객과 접점이 있는 영업현장에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전파했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왼쪽 첫번째)가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과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손보

다. 업무 정확도도 향상하기 위해 지속해서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이사는 "회사는 자금세탁방지업무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자금세탁위험을 관리하면서 모든 임직원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신한은행, 업계 최초 비대면 신탁형 ISA

비과세 혜택 절세형 종합관리 상품
'신탁형 ISA, 절세를 부탁해' 이벤트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 비대면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규 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

비대면 신탁 ISA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민인 거주자이며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신한 솔(SOL)에서 화상상담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신탁형 ISA는 예금, 적금, ETF,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절세형 종합관리 상품이다. 연 2000만원 납입한도 내에서 운용수익의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 초과 수익은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신탁형 ISA 서비스 시행 기념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탁형 ISA, 절세를 부탁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이벤트 기간 중 비대면 신탁형 ISA 신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기프티콘(300명)을 제공하고 30만원 이상 신규 고객에게 안마의자(2명), 백화점 상품권(2명), 치킨 기프티콘(100명)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115@

IBK기업銀 'IBK BOX POS 홍보대사' 발대식

MZ세대 직원 20명으로 구성

IBK기업은행은 지난 23일 'IBK BOX POS 홍보대사'를 선발하고 발대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IBK BOX POS 홍보대사'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디지털 직무역량을 갖춘 MZ세대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전문 마케터이다.

선발된 홍보대사는 다양한 채널을 통

해 'IBK BOX POS'를 홍보하고 소상공인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설명회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IBK BOX POS'는 사업자가 앱(App)만 설치하면 본인 스마트폰을 카드결제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이다.

대표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등록 가능해 배달, 출장 등 방문 결제가 가능하



지난 23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IBK BOX POS 홍보대사 발대식'을 마치고 홍보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며 기존 POS단말기와 달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